中, 한국·인도와 FTA 적극 추진

최고지도부 "경제 파급 효과 크다"…내년 본격 협상

중국 최고 지도부는 내년 한국과 인도 등 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 소식통들은 2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신중한 입장인 실무진과는 달리 한국, 인도와 FTA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산관학 공동연구에 합의한 이후 올들어 세차례 회의를 했으며 내년 2월 마지막 회의를 하고 협상에 착수한다.

중국은 또 2003년 6월부터 인도와 FTA 공동연구에 착수해 지난 10월 2단계 공동연구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소식통들은 "중국 지도부는 특히 한국과의 FTA 체결이 경제적 파급효과나 상징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칠레, 파키스탄이며 협상중인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페루 등이다.

소식통들은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호주와는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 규모로 볼 때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중국과 FTA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기 예수 탄생 축하 지난 24일, 아기 예수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헴의 예수성탄성당 앞 구유 광장에서 수천명의 교인들이 모여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식 전통 공원, 워싱턴에 들어선다

교민들 모금운동 전개 오는 2010년 착공키로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조형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일원에 들어선다.

워싱턴 일대 교민사회는 세계의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에 한민족 고유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성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교민들 열망을 수렴, 지난 2005년 초반부터 계획수립에 돌입해 북버지니아 공원국과 코리아가든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정화)를 결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측은 미 동부지역에 처음으로 전통적인 한국 정원, 이른바 '코리아 가든'을 조성키로 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형물 사업은 미국 속에 우리문화를 보여주고 코리안-아메리칸으로서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뿐 아니라, 주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사 시작은 2010년 초로 계획돼 있지만 총 60만달러가 들 것으로 보이는 1차공사 비용의 90%가 모금되면 언제라도 공사에 착공, 완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교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 모금은 이 위원장이 낸 1만달러를 포함해 총 6만여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위원회측은 지난 19일 이 조형물이 들어설 버지니아주 비엔나 소재 메도우락 공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리아가든 조감도를 공개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2010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그해 1차 건설을 완료하고, 2차 건설을 수년내 끝내기로 했다. .한국식 종각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양식의 정원이 될 코리아가든에는 소나무와 은행나무, 무궁화, 수련 등 한국 토종의 식물들이 심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9·11 테러 무역센터서 마지막 미사

■지구촌 성탄 표정

올해도 지구촌에는 어김없이 성탄이 찾아왔다. 각국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온 세상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예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모처럼 5만여명의 순례객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여전히 종파간, 인종간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중동 등지에서 성탄의 들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라크, 성탄분위기 '썰렁'=자살테러 공격과 종파적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날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분위기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성가대의 캐럴이나 성직자들의 환영 인사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했다.

전체 2천600만 인구중 3% 미만에 그친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무장세력들의 목표물이 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나라를 떠났거나 바리케이드 등으로 이웃과 격리된 채 살고 있다.

▲가자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방문 줄이어=가자지구의 기독교인 수백명은 성탄절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로 몰려들었다. 이스라엘측으로부터 어렵게 허가를 얻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넘어가 1주일동안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을 찾거나 친구를 만나고 돌아올 예정이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의 3천500여 기독교인중 약 520명에게 성탄절과 신년을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9.11테러 희생자 추모=9.11테러가 발생한 전 세계무역센터 자리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성탄전야 미사가 6회째인 올해를 마지막으로 열렸다. 테러 후 10개월동안 그 자리를 지키기도 했던 브라이언 조던 신부는 "6년동안 계속된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오늘밤으로 마무리지으려 한다"며 "이 장소를 다시 건설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독일 산타클로스 우체국에 어린이 편지 쇄도="우리 부모님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독일 베를린 근교 히멜포트에 마련된 산타클로스 우체국에는 올해 세계 약 80개국의 어린이들로부터 28만장의 편지가 쇄도했다.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 앞으로 보낸 편지들중 희망사항 1순위는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애완견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구글, NAADC와 산타 행적 추적 서비스=위성지도서비스인 구글어스는 콜로라드 스프링스 소재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함께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의 행적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어린이들이 구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3차원상에서 산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재개땐 러 "참여 준비돼 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4일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회담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것은 새로운 단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회담의 모든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이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핵문제를 포함하는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에 관여하는 모든 참석자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인위적인 장벽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건설적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사전 조율을 마치는 대로 오는 2008년 초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카다피 국가원수에게 전달한 라브로프 장관은 "양측이 중요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모든 대화들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양국 정상회담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면서 "양국 지도자는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합의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즈벡 대선 카리모프 압승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23일 실시된 대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둬 임기 7년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우즈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 유권자의 90.6%가 참여한 이번 대선에서 집권 자유민주당의 카리모프 후보가 88.1%를 득표해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다고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선 95.9%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91.9%를 얻은 바 있다.

1989년 당시 소련 우즈벡 공화국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하게 된 그는 이로써 지금까지 세번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포함, 이들 선거는 국제기준에는 미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日 총리 취임 2개월 이례적 사저 출퇴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25일로 취임 2개월째를 맞았으나 공식 거처인 공저를 마다한 채 계속 사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도쿄(東京)에 있는 사저에서 매일 관용차로 30분을 들여 집무실인 도심의 관저로 출퇴근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10월 공저를 둘러본 뒤 가재도구까지 옮겨놓고 이사준비를 완료했는데도 집무실과 인접한 공저를 멀리한 채 사저를 이용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공저에서 하룻밤을 시험 숙박했으나 다음날은 곧바로 사저로 발길을 돌렸다.

후쿠다 총리는 기자단에게 "하룻밤 밖에 안지냈지만 물렸다"며 마음에 들지않는 표정을 지었다. 후쿠다 총리는 그동안 "공저가 너무 넓어 걱정이다"는 말을 주변에 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작은 실수 문제없다는 공직자 경계"

중국 올 잠언 1위 시진핑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올해 가장 주목받은 잠언(箴言)을 한 지도자로 선정됐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지도자들이 한 수많은 발언들을 충고하는 격언 격인 잠언과 매서운 발언, 통쾌한 발언 등 3분야로 나눠 선정해 발표했다.

시진핑 위원은 저장(浙江)성 서기 시절인 올해 1월 25일 성 기율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작은 실수는 별문제가 없다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경계해야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할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최고의 잠언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이 발언은 잠언의 선정 기준인 충고의 효과 면에서 5점 만점을 받았고 네티즌의 주목도에서도 역시 5점 만점을 받았다. /연합뉴스